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2133-8345
복합개발팀장	김용민	2133-8361
담 당 자	이성환	2133-836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이문차량기지 20만 m² 복합개발 기본구상 첫발

-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2월중 입찰공고
- 지역간 단절, 인근지역 민원 등 도시발전 저해시설의 기능 복합화 필요
- 인근 이문 재정비촉진구역, 중랑천 수변공간 등과 연계...지역개발 구상 마련

- 서울시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 m²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차량기지로, KTX 등 철도차량의 정비와 유치를 담당하고 있다.
-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퀴소음(squeal noise),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서울시는 연초 확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 그동안 도심의 철도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보행체계 단절과 지역 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초래하는 시설물이 되었다. 특히, 대규모 차량기지는 지역간 물리적인 단절과 도심 공간 활용을 제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여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대단위 주거개선사업 시행, 중랑천 공원화 등과 연계해 석관동, 이문동 일대의 부족한 지역주민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고, 타 역세권에 비해 활성화가 낮은 신이문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또한, 최근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세계적 친환경건축 인증시스템을 적용해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 콤팩트 도시로의 전환 및 다양한 용도를 집적한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변복합도시 조성, 역세권 중심의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간 재정비 등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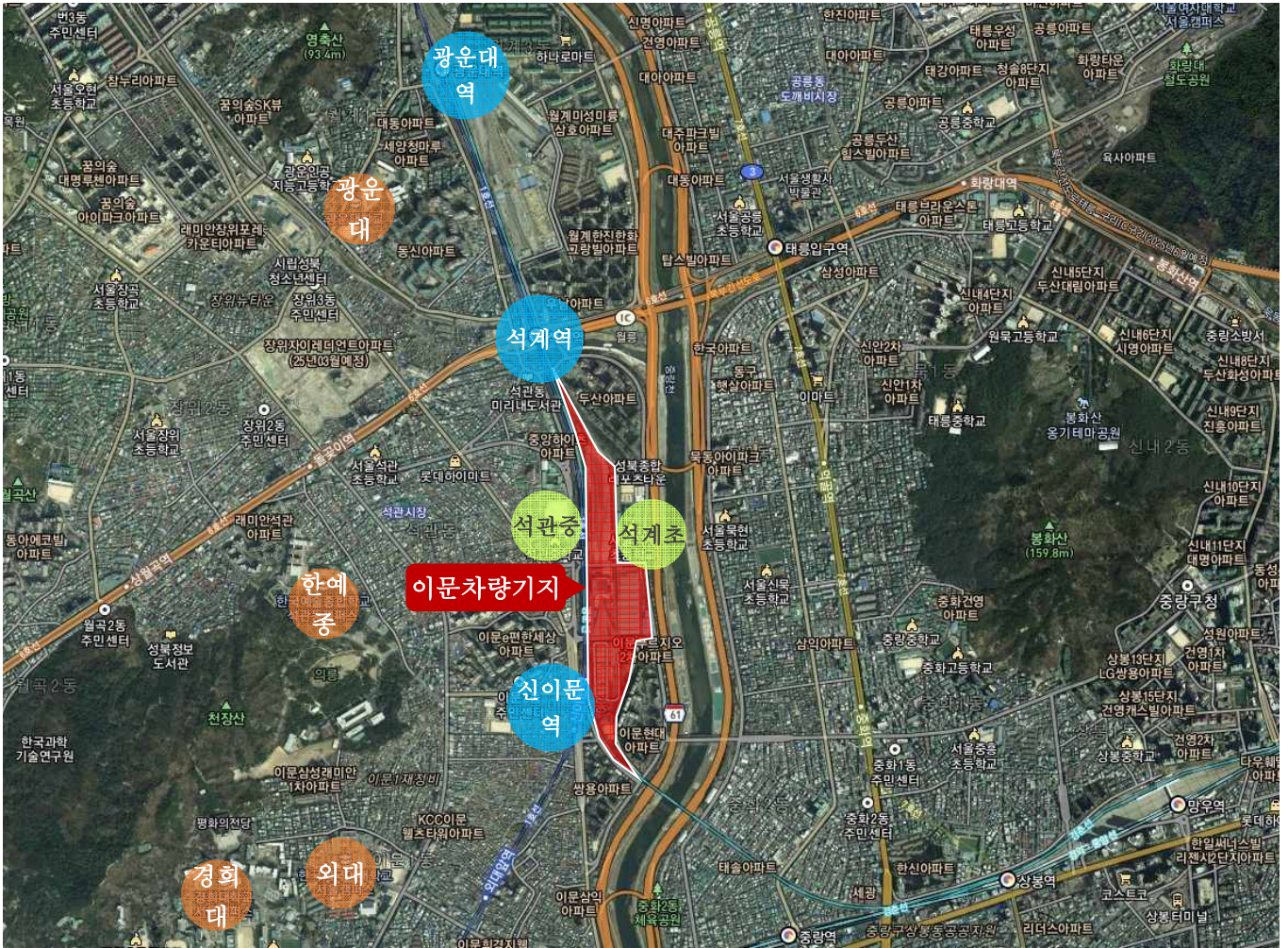
- 서울시는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단절된 지역 내 연결성을 확보하고,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 공간을 창출하는 등 가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방안을 도출한다.

- 주요 과업내용은 대상지 및 차량기지 이전관련계획 등 기초조사, 복합개발 유형화 및 활용방안 검토, 적정 사업방식 등 사업화 전략 검토 등이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중랑천 공원화계획 등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구상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대상지는 동북 생활권 지역의 중심지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중심지 위계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정립해 고용기반을 위한 업무·산업기능 강화 등 동북권 전역에 대한 지역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주변의 중랑천, 천장산, 의릉과 같은 자연환경과 유적지를 연계하고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 인근에 위치한 대학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용도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동서축 지역단절의 주요원인이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도 긴밀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 차량기지 개발은 단순히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지역산업 지원기능과 더불어 주거, 상업, 업무 복합용도와 도로, 철도, 역사, 주택 등의 수직적 공간계획 수립으로 석관동·이문동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구심점 마련의 효과가 기대된다.
- 흥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철도시설의 복합적 활용은 광역교통 결절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새로운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다”라며,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현황도



경정비소



중정비소



환승주차장 입구



환승주차장